

투데이 칼럼

현대문명과 AI

세계 최고의 병원을 꼽는다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존스 홉킨스병원(1989년 창립)을 지목하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 병원은 존스 홉킨스 의대 부설병원이다.

이 유명한 병원이 10여년 전 오진율이 25%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물론 세계가 모두 놀랐다. 그런데 그 배경이 대단하다.

다른 병원이면 ‘오진’의 죽에 안넣을 것조차 다 집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함으로서 의료사고나 후유증을 막겠다는 취지이니 얼마나 훌륭한 자세인가!

병원의 의료사고하면 판단 오류, 수술중 중대 실수를 흔히 생각하지만 수술가위, 거즈, 관셋을 배안에 넣고 봉합한다던가, 혈액형이 A인 환자에게 B형 혈액을 주사하는 황당한 실수도 드물지 않다.

그래도 의료사고는 여러사람이 관여하고 절차나 처리과정이 모두 기록되니 덜한 편이지만 사망을 가장 분통하게 하는 것이 형사, 사법절차이다.



홍민기  
수필가

경찰, 검찰, 법원이 사건이나 사고의 진실을 왜곡, 누락, 허위로 처리하였을 때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때로 분노를 넘어 극단의 상황마저 일으킬 지경이 될 것이다.

특히 피해가 중대하여 가해자에 대해 같은 피해로 응징하고 싶은 상황에 있을 때 사법기관의 불공정은 ‘국가나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이 이어진다.

2015년 AI바둑 알파고가 중국 프로바둑기사 판후이와 처음 대전을 했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반신반의 했다.

그러나 연승을 함으로서 놀라게 했는데 이세돌의 1승은 기적과 같았다.

이제 세계의 많은 문명분야는

AI가 적용되어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오류(판단, 구분, 실행 등)가 열려되는 분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가 대체되고 있다.

AI는 기계적 역할은 물론 노래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능력을 이제 사람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이 되는

의료, 변호, 판결분야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수십만, 수백만가지의 판례, 법조항, 법형성의 근원, 유래까지 입력하면 영터리 고의적 판결은 없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이 AI로 사건, 사고를 분석, 법률자문을 해주는 로펌마저 성행이다. 변호사가 한

직이 되어갈 상황이다.

의사를 역시 진단, 처치의 판단을 첨단의료기에 의존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문제는 AI가 일자리 영역을 차지할수록 노동자 설자리가 확연히 줄어들다는 결론이다.

최근 보았던 유튜브의 AI유리온실 농장의 경우 2만평 농장의 노동자는 사장을 포함 고작 8명이다.

그것도 거의 자동화 기계를 활용, 힘이 안든다.

AI의 첨단기능의 우수성을 굳이 들지 않아도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기관의 AI도입 요구는 엄청난 불신과 분노에 따른 결과이다.

오진율 25%라는 존스 홉킨스병원의 공식발표를 우리나라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사건화 된 사실조차 감추기 급급할 것이다.

믿지못하는 세상, AI라고 다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간사한 인간의 조작이라면? AI가 만든 데이터마저 왜곡한다면?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의 현실이다.

사설

호스피스 역할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요양병원이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하며, 심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어 인간적인 마지막 삶과 웰다잉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이곳에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베푸는 봉사 활동 및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주로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2017년부터 만성 폐질환·간경화·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24시간 환자를 돌보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아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 가능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전에 생을 마감한다. 임종이 매우 가까워진 상태에서 입소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을 못 버티고 임종을 맞이한다.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며 숨을 거두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징조가 전혀 없이 갑자기 숨을 거두는 환자들도 종종 있다. 아침 식사 멸정히 하고 거동과 다른 활동도 문제없이 하던 환자가 그날 밤에 심정지가 오면서 급사하는 일도 흔하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임종 전조증상(호흡곤란, 요실금, 저혈압 등)을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눈치 채지 못하다가도 의료진들은 진찰하다 보면 임종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보통 호스피스를 권할 정도면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서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치유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재조명 되는 ‘황성옛터’의 왕평

‘황성옛터’의 작사가로 유명한 왕평(1908~1940, 본명 이응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대변한 대중문화 운동가다.

1928년 발표한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란 노래 황성옛터는 레코드로 정식 발매돼 5만장에 달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왕평은 작사가이자 연극 대본과 영화 시나리오를 쓴 작가다.

그러나 너무나 짧고 굵게 살다갔다. 32세의 나이에 연극 ‘남매’ 공연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0편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다.

1927년 개성 공연을 갔다가 연주단장인 전수린과 폐허가 된 고려 왕궁터인 단월대를 찾았다.

그곳에서 왕평이 전수린의 바

이울린 연주를 듣고 ‘황성옛터’ 노랫말을 붙였다.

왕평은 이 노래를 단원이었던 이애리수에게 부르게 했다. 처음엔 연극 막간에 불렀는데 앙코르가 쏟아져 9번이나 불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단상사에서 이 노래만 전문적으로 부르는 가수가 됐다.

이애리수가 공연할 때면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 말을 탄 일본 순사가 출동할 정도였다. ‘조선의 세레나데’라는 별명을 얻은 이애리수는 1932년 정식 앨범을 내고 데뷔했다.

그러나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자살 소동 끝에 은퇴했다. 나라 잃은 식민지 국민들의 울분을 달래던 이 노래는 결국 금지곡이 됐다. 왕평은 여러 명의 가수를 발굴했다. 광양 기성권번 출신의 왕수복과 선우일선을 들 수 있다. 영천에서는 왕평가요제를 개최해 올해로 29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너도나도 초대박을 꿈꾸며



3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프림의 한 로또 기계에서 파워볼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추첨한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약 14억 달러(약 1조9447억 원)까지 불어났으며,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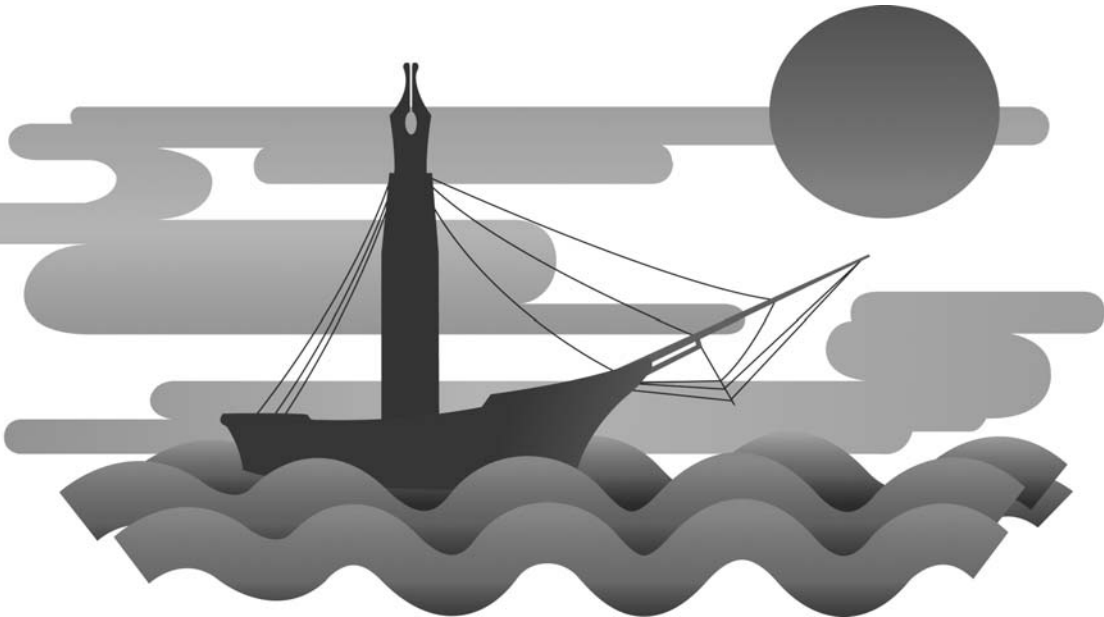
항일 투쟁사 보여주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공연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공연 '정의필승'이 열리고 있다. '정의필승'은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뒤 항일 투쟁사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엮어 뮤지컬 형태로 만든 것으로 1940년대 일본군과 맞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과 승리 등을 묘사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